

품격 있는 죽음

죽음이 가까이 와있는 이에게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죽음에 대해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정서입니다.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보면서도, 그 고통이 연장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게 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원하는 것만이 사람 된 도리이고 효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주렁주렁 주삿바늘이 꽂힌 채 인공호흡기 등 특수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채 죽음을 맞는 게 흔한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품격 있는 죽음인가 하는 회의적인 견해들이 진작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올해 초 국회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란 긴 이름의 법이 통과됐습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미리 밝혀둔 자신의 뜻(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나 가족 합의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웰다잉(well-dying)법'으로도 불리지요. 잘 먹고 잘사는 웰빙(well-being), 품위 있게 나이를 먹는 웰에이징(well-aging)에 이어 웰다잉은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는 물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명 의료를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이 치료를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연명치료를 중단한 의사가 살인방조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 부부의 삶과 죽음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품격 있는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경제학 박사인 스콧은 교수를 하다 노년에 헬렌과 함께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의 숲으로 생활 터전을 옮깁니다. 자본주의, 물질주의가 삶을 황폐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본 스콧은 하루 4시간씩 살아가기 위한 농사(육체 활동), 책 읽거나 글 쓰는 작업(지적 활동), 이웃·자연과 함께 있는 시간(교제 활동)을 가지면서 자급자족 생활을 하지요.

스콧은 100세가 되던 1983년 8월, 쇠잔한 육체와 다가온 죽음을 감지하고 곡기를 서서히 끊습니다. 일체의 연명적 치료나 물리적 도움을 받지 않고 아내 곁에서 평온하고 조용하게 삶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스콧은 생전에 '주위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라는 글을 아내에게 남겼습니다. '마지막이 오면 나는 죽음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길 바란다'로 시작되는 이 '지침'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사도 약물치료도 없이, 내 작업복을 입힌 채, 아무런 치장이 없는 상자에 넣어, 이미 비용을 지불한 화장터에서 조용히 화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내 죽음으로) 슬픔에 잠길 필요가 없으며,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충만하게 살아왔으므로 기쁘고 희망에 차서 간다'고 쓴 뒤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헬렌 니어링이 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에서). 이들 부부의 삶과 죽음은 원칙과 존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사망한 올리버 섹스 뉴욕대 의대 신경학과 교수의 임종 태도도 많은 이들로 하여금 품격 있는 죽음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암이 전이돼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뒤 2015년 2월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몇 개월 살지 모르겠으나 더 풍성하고 깊고 생산적으로 살겠다."며 삶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기

고문의 마지막 말은 "무엇보다 난 이 아름다운 행성에 사는 감수성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자 모험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더 타임스에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 대상의 한 조사에 따르면 집에서 임종을 맞겠다는 응답이 75%,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90%나 됐습니다. 아툴 가완디는 저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 '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품격 있는 죽음에 대해 가족이나 친지, 친한 친구들과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